

연중 제 17주일

제 1독서 : 1열왕 3, 5, 7-12

제 2독서 : 로마 8, 28-30

복음 : 마태 13, 44-52

# 숲 정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에서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로마 8, 28).

## 강론

### “자연의 신비 속에서”

김봉희 신부 / 전동 천주교회

땀 흘린 사람들이 꿈을 안고 기다리던 바캉스, 휴가철이다. 즐거운 방학과 더불어 본당마다 ‘코이노니아’ (친교)라 이름하던 수련대회가 곳곳에 펼쳐지고 일제이 캠프 나들이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국민 7·8월이 한꺼번에 나선다는 여름 피서시기에 요즘엔 자리 물색 등으로 가히 열병을 치뤄야 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무척 값지고 보람있는 순간들이 되기도 한다. 공동체의 친교와 화합은 물론 재결속, 활성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겐 모처럼 안겨보는 산천에서 순수한 사랑과 신앙체험으로 자못 진한 감동과 추억거리를 만들어 그들의 싱싱한 삶을 한결 푸르고 생기차게 부풀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준비와 투자를 하기까지 한다.

교회의 캠프이란 결코 복잡한 삶에 찌들리고 공해에 시달린 사람들이 때묻은 계곡 등을 찾아 흔히 펼치는 그런 단순 야영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도 우린 한 걸음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빚어진 천혜의 자연 정취를 맛보며 협동과 희생 봉사를 통해 심신을 다지고 바른 삶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깊은 신앙행사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각 본당이 흥역을 치루면서도 거기 온 힘을 쏟지 않는가.

모조록 다들 보다 맛지고 맛지고 참된 순간, 새삶을 위한 좋은 나들이가 되기를 빈다. 그리고 오늘 성서 말씀처럼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 이 아름다운 산하, 금수강산에서 신의 가득한 채취와 향기, 그리고 구원의 빛과 진리의 샘을 보물처럼 안고 얻어오길 기원해마지 않는다.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겐 그 안에 반짝이는 천국(영생)의 보화를 경탄 속에 발견하고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된 낙원(자연) 그 신비 속에서 그분의 고맙고 따뜻한 손길을 찬찬히 더듬어 보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 11, 28).

## 소리

### “시원한 소식을 기다리며”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의 하나다. 또 폭우가 쏟아지면 재해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재해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최소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비가 많지 않았던 전주지방이 올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자랑하고 있다. 정읍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시내가 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애써 지은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아픔도 있었다.

근년에 들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천재지변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한발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어느 지역이 물난리로 휩쓸렸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작은 섬마을이 온통 쪼개치고 말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재난들이 혹시라도 환경 파괴에서 오는 산물이 아닌가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두려움기 그지없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난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온통 사람들뿐이다.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그것도 무더운 날씨에 썩어나는 쓰레기들 때문에 코가 썩을 지경이라서 괴롭다. 이리니 피서가 아니라 환경 파괴의 현장에 뛰어든 꼴이 아닌가 싶어서 두렵기만 하다.

그래도 지난주 초, 후덥지근한 더위를 잊게 하는 뉴스가 있었다. 서울 평화상의 폐기 추진 소식이다. 그렇다. 나쁜 관행들을 과감히 버리는 일은 시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자는 사정이 바로 그것이다. 또 시원한 소식은 없을까? ㉠

### 숲정이 산책



특 집

# “회칙 「인간 생명」 (Humanae Vitae)은 양심의 명령”

오늘(7월25일)은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반포 25주년 기념일이다. 회칙 「인간 생명」은 ‘죽음의 문화’에 대항하여 ‘생명의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낙태도 마다 않는 비윤리적인 현실을 보면서 교황청 가정위원회 위원장 ‘로페즈 트루히요’ 추기경이 지난 4월14일 ‘국제인간생명수호대회’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운 연설문을 요약한 것이다.

### 머리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 반포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회칙은 결혼과 가정 안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용감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소리를 내어 양심을 꾸준히 일깨울 윤리적 외침인 「인간 생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 1. 회칙 「인간 생명」은 진실한 양심이 요청하는 윤리적 명령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논리는 인간에 관한 진리가 인간의 창조자인 하느님과 따로 떼어 놓고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 생명」 반포 후 25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황 바오로 6세의 선택과 예언자적 행위에 대한 그 진가를 보다 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반발과 그릇된 해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 바오로 2세도 똑같은 성실한 태도로, 똑같은 의무감으로 가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1968년 7월 25일에 목자와 파수꾼으로부터 윤리적 의무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뻔뻔스럽고 가공할 만한 세력들에 대하여 교회의 윤리적 힘은 매우 절박하게 빛을 발하고 있고 인간성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회칙 「인간 생명」의 인간학적 요청

「인간 생명」이 전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과 가정에 대한 진리와 관련하여 인간학적으로 매우 공허한 하나의 정신 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진리와 연관된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행

하게도 혼해빠진 어떤 것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성 결합의 의미에 관하여 생명에 대한 개방이 발견되는 자기 증여의 의미와 어떠한 연결도 없이 하나의 고립된 행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실히 사랑 자체를 불모화할 수 있는 이기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 3. 사목적 기준들

1) 가정사목 분야에서 그리고 새복음화의 매우 중요한 토대인 생명의 증진과 옹호에 있어서 「인간 생명」은 진실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 사랑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 결혼의 단일성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께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2) 우리는 교회의 교도권으로부터 이탈하는 자세를 단호히 피하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혼돈과 애매모호함이 부부의 양심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느님을 배제한 세상, 이기적으로 세속화된 세상으로부터 실제로 받아들여진 배역 모델들이 그들이 타협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책임성있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자유에 대한 적절하고 품위있는 발휘임을 발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말투인 ‘가족계획’이라는 말을 피하고, 한 가정의 규모 혹은 크기에 대하여 말할 때 ‘책임성있는 부모 역할’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오늘의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4) 아무튼 가정의 규모를 결정한 후에도 그에 대한 올바른 동기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늘날은 자연적인 출산 조절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간 생명」의 활기를 북돋는 진리의 빛 안에서 모두가 한데 뭉쳐야 할 때입니다.

### 맺음말

오늘 우리는 믿음과 희망으로 「Humanae Vitae」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죽음의 문화’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참회하고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연간 5,000여만 명의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고 이 땅에서도 150여 만명의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아픈 현실을 극복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세계적으로 저녁 7시 25분에 25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생명 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결심으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전주 하리스포츠**  
자칼텐트, 등산용품, 낚시 운동기구  
(20~40% 할인 판매)  
송혜리(살로메)  
관동로 통신공사 건너편  
☎ 84-2941, 88-1960

**구(九) 죽 염**  
대리점 모집  
• 판매하실 분  
• 소자본으로 가능  
•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람.  
이영근(마지아)  
☎ (0658)44-4760, 547-9970

**명륜 서예 한문 학원**  
선기정(요셉)  
삼천목육탕 2층  
☎ 221-6492

**활티생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5분교리 ㉞

“혼인성사(婚因聖事)”

혼인-창조하는 사랑, 남자와 여자, 그대 있기에, 사랑과 결혼, 늘 푸른 결혼, 참부부가 되는 길, 참부모가 되는 길, 성가정, 부부 화합의 예술, 뻗어가는 사랑 등등 참 많기도 한 부부 사랑과 가정에 관계된 서적들이다. 나열된 제목들만 보고 있어도 결혼과 가정의 위대한 소명, 신성한 계약이 느껴진다. 하느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짝지어 주시면서 축복해주셨다. 그리고 자손을 낳아 번성하라고 하셨다. 구약과 신약에 묘사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바람피우는(남편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극히 충실한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실 혼인에 의해 승화되는 남녀간의 성실한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제적 관계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22).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처럼 주고받는 이 사랑 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신적인 사랑을 뚜렷이 보여주는 특별한 표상이며 영원히 또 독특하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려는 열망이다. 실제 부부 사랑은 “정신 애정, 육체의 가치들을 균형있게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랑, 상호 인격적인 성장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성실하고 갈림이 없는 사랑, 부부를 생명에 봉사하게 함으로써 인간 공동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생산적인 사랑”(복음화와 혼인성사 35)이다.

부부 사랑의 십계명에서 2가지만 소개해본다.

- 인생 최대의 예술인 이 부부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라.
- 부부는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인과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에 정성을 다하며, 특히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라.

\*참고 자료 : 혼인성사(10분 슬라이드) · 빛속에서 만난 사람(27분 VHS)

교 구 소 식

1.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 25주년 기념 생명과 가정을 위한 미사 봉헌 및 타종 : ①각 본당은 7월25일(오늘)에 생명과 가정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본당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7월25일(오늘) 오후7시25분에 생명의 문화 건설을 지원하는 25번의 타종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빛두레 신앙인 학교 : 7월26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김승오 신부.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 7월31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4. 남성 45차 꾸르실료 : 7월29일-8월1일 천호 피정의 집.
  5.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7월30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고경훈 신부.
  6. 변산해수욕장 야외미사 : 8월8일까지 매주일 오후4시 해수욕장 노천무대.
- ※ 축! 명명 : 25일(성야고보) 김광태 신부님, 31일(성이냐시오) 성태수, 안철문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 8월1일 오후2시 성바오로 서원(0652)252-3398.  
살레시우스녀회 : 8월1일 오후2시 언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소독약 사용을 지혜롭게

욕조와 타일의 세면대는 소다나 붓사로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레몬즙은 금속과 구리를 닦고 물때를 벗겨내기 위한 표백제로 사용됩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내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부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샘이랑 : 온몸,삼푸,린스 겸용  
• 천연샘 : 부엌용(아기생,맑은샘)  
전경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요십이 (1039) 김병오



**남자 가르멜수도회 성소자 피정**

- 때 : 7.31(토) - 8.2(월)
- 곳 : 가르멜수도원
-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거나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영세한 지만 3년 이상 경과한 젊은이. 평수사의 경우는 군을 필해야 함.
- 문의 : 인천 ☎ (032)542-2625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탄산수**  
전주,이리,군산,정읍,김제,부안지역 배달  
전화 : (0652)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권이복  
※ 수익금은 가톨릭 농민회 생명 공동체 운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입시 전문 **정주 연세학원**

여름방학 공부

- 개강 : 1차 7.20(화)  
2차 7.22(목)  
3차 7.26(월)
- 중 · 고등부 : 영어, 수학, 국어 - 기초부터
- 국교부 : 전과목, 영어 기초 - 재미있고 알기 쉽게
- 공무원 및 각종 공사 시험준비반 (취업 준비 고3, 대학생)  
주간반 : 오전 9시  
야간반 : 오후 6시40분  
백현기(모이세) · 임방욱(요셉파나)  
☎ 535-3845, 8812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김 동 주

- ◎ **중·고등부 산간학교에 협조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초등부 신앙학교: 26~29일. 참가비-3,000원. 물놀이: 30~31일. 유치부, 1,2학년-2,000원
  2. 유아세례: 31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
  3. 성모승천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4. 알림: 다음주일(1일)은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5. 금주 모임: 제대회(27일 어머니미사 후)  
차주 모임: ①울뜨레아(1일 장미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5일 전 10시30분)
  6. 금주 청소: 중노10, 11반, 차주 청소: 중노12, 13반.
- ☐ **지난주 봉헌금:** 904,810원 ☐ **교무금:** 81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31일 오전9시~12:30
2. 청년회 하계 수련회: 일시-8월2~4일, 장소-지리산 천왕봉, 회비-5,000원.
3. Pr증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단장-이경호, 부단장-조백환, 서기-최병혁, 회계-김판관) 천사의 모후(단장-배순자, 부단장-이병정, 서기-윤순례, 회계-설옥자)
4. 회합: ①제대회-29일 오전 10:30 ②병자봉성체-30일 ③유아세례-31일 ④대견회-8월1일 공식미사 후 ⑤사목회-1일 저녁미사 후.
5. 신앙학교 찬조금: 김복수, 신일균(5만원) 정정자, 노순덕, 정승관, 채용석, 한순애, 이승열(3만원) 홍인자, 다윗의담, 김순오, 하병규, 정동민, 박병숙(2만원) 조점례, 이의관(만원) 누계 1,892,06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한 동 욱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
  2. 본당발전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모든 미사중.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4.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일(월)~29일(목)
  5. 초·중·고 여를행사 후원금: 자모회-15만원, 장년회-12만원, 반석회-5만원, 요셉회, 여정진-3만원, 김만순-2만원, 남원준, 하태중, 한귀금-1만원, 이상윤-5천원, 강순옥-3천원, 계-43만8천원, 누계-63만8천원.
  6. 감사: 제대꽃-천사들의 모후, 7. 첫열성체 교리: 30일부터.
  8. 차주 전례: 해설-이옥동, 독서①김봉길 ②주영례 봉헌-유순천,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474,030(161,130)원  
☐ **교무금:** 11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 명 용

- ◎ **연중 제 17주일**
1. 반장 윌례회: 7월25일(오늘) 공식미사 후(반장님 전원 참석바람)
  2. 꾸리아: 8월1일(다음주일) 오후 2시.
  3. 사목회: 8월4일(수) 저녁미사 후(시간 엄수바람)
  4. 지모회: 8월4일(수) 오전 10시30분.
  5. 중고등부 여름 캠프: 7월23일(금)~7월25일(일) 오늘까지. ※ 중고등부 여름 캠프에 수고해주신 성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7월24일(토)~7월27일(화) ※ 7월27일(화) 물놀이(자모회원님들, 수고해주십시오)
- ※ 청소년 여름행사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지난주 봉헌금:** 910,000원 ☐ **교무금:** 57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현 유 북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오 직 환

- ◎ **연중 제 17주일.**
1. 오일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2. 29일: 꾸르실로 남성 45차 교육(구정서, 요아킴)-많은 기도바람.
  3. 신앙학교 1일교장: 27일(정성봉) 28일(신현자) 29일(김나철) 30일(이규세)
  4. 조박 공동체 수련에 전신자 적극 참여바람(7월31~8월1일)
  5. 지난주 2차 헌금: 102,100원(초, 중, 고→31일)
  6. 청소 봉사: 5구역 1반, 2반
- ☐ **지난주 봉헌금:** 755,400원 ☐ **교무금:** 1,186,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연중 제 17주일**
1. 금주: 성마리아 꼬미시용(후 2시)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일~30일. 물놀이: 30일. 접수: 25일까지.
  3. 명화 상영: 28일 저녁미사 후, "로마의 휴일"
  4. 성가대회: 30일(금) 오전 11시.
  5. 남심 45차 꾸르실로 참가: 7월29일~8월1일-많은 기도바람입니다. 김용만(요왕), 서재성(마르치아노), 송재정(대견안드레아), 원수만(야코브), 유세환(바로로)
  6. 차주: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제수 글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③요셉회(후 6시)
  7. 감사합니다: 성지개발헌금(오십만원)-손취부(요셉)
  8. 테니스장 개설: 회원 모집(사무실)
- ☐ **지난주 봉헌금:** 1,822,5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김 상 근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6일~30일 전 8시30분~후 12시30분. 교학년 캠프: 31일~8월1일. 저학년 물놀이: 8월2일.
  2. 꾸르실로 남성 45차 강습회: 29일~8월1일 최준, 임병구, 박병환, 최재문, 윤옥근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3. 병자방문: 29일 09시, 봉성체를 원하는 분 사무실에 접수.
  4. 자신의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사랑 나눔의 헌금
  5. 신앙학교 후원금: 반별로 오늘까지 일만원 이상 완납바람.
  6. 회의: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성소후원회-28일 어머니미사 후, 회비 납부의 날.
  7. 순결하신 모후Pr 100차: 단원 단합대회-27일 11시.
  8. 조상철(베드로) 탈상미사: 30일 전 11시 14-6반 안보나택.
  9. 가경 축성미사: 29일 저녁 8시 석구동 김병곤 대.
- ☐ **지난주 봉헌금:** 1,294,270원 ☐ **교무금:** 2,05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한 병 갑

1. 꾸리아: 오늘 미사 후.
  2. 여름 신앙학교 물놀이: 26일(월)
  3. 본당 전신자 여름 피서: 27일(화)~30일(금) 구역별 참석희망.
  4. 울뜨레아, 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 8시.
  6. 축! 남심 45차 꾸르실로 교육참가: 한병갑(바로로), 박태희(반달레오)
  7. 제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전례단·복사단 피정: 26일(월)~27일(화)
  9. 성소후원 회장: 명경진(공사가)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 금주 전례: 김희숙, 박영진(공사가)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차주 전례: 강희연, 박순옥, 독서·봉헌: 김진숙, 윤경모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등 섭

- ◎ **오늘은 연중 제 17주일입니다**(“인간생명”반포 25주년을 기념하는 생명과 기쁨을 위한 미사 봉헌일입니다)
1. 유아세례: 7월25일(일) 오후 4시.
  2. 꾸리아: 7월28일(수) 오전 10시.
  3. 구역봉사자 모임: 8월4일(수) 10시30분.
  4. 성모 기사회: 8월7일(토) 10시30분.
  5. 학생 여름 성경학교(연수 및 캠프)가 장수 동화 국민학교에서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사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는 물론 물질적로 협조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세삭들을 위한 실천적인 마음을 기대합니다.
  6. 청년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사안내: 금주-인자하신, 지혜로우신, 차주-성조들의 모후, 모든성인.
- ☐ **지난주 봉헌금:** 1,314,010원 ☐ **교무금:** 1,897,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 의 도

1. 모임 안내: ①반석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③반희장 준비모임-30일(금) 10시미사 후
  2. 감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부 수련회에 협조하여 주신 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예비자 특별교리: 8월9일~13일 신축헌금 봉헌액: 1,080,000원
-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김준권 ②한정숙 봉헌안내-유형남 부부, 정효현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정원희 ②이민희 봉헌안내-김춘성 부부, 김호선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430,120원 ☐ **교무금:** 1,764,000원

전주지구 성서교실 「신약편」 수강자 모집기간-7월1일~8월21일까지, 등록비-40,000원, 문의 85-0041 사목국